



특 집 _ 미국 정가에 ‘코리안 우먼 파워’ 돌풍… 여성 3명 등 한국계 4명 연방하원 진출
화 제 _ 문 대통령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 “인류 생존과 한국 미래 위해 가야만 하는 길”
인터뷰 _ 김성곤 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민족이 시대적·인류사적 과제 수행해야”



코리안이 세계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재단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성곤입니다.

19세기 중반 가난을 피하여 러시아 땅 연해주와 중국 동북으로 이주를 시작한 이후 우리 한민족은 미국과 일본으로, 그리고 유럽, 동남아, 대양주, 저 멀리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개척하며 어느덧 해외 동포의 수가 750만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GDP 순위 세계 10위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였으며, 여기에는 재외동포들의 역할도 상당히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한민족은 70년 넘게 남북이 분단된 채 대립하고 있으며, 지역 간·이념 간의 갈등은 우리 한민족의 발전을 발목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우리 한민족을 ‘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코리안은 ‘고려(高麗)’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한자로 높을 ‘고’ 고을 ‘려’, 즉 ‘매우 아름다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토록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금수강산과 한글, 한복 등 우리 문화도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뜻으로, 단군왕검께서 세우신 한민족 최초의 나라,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민족 정체성의 중심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5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에는 ‘너희 코리안은 고난의 역사를 겪으며 해외로 나갔지만, 이제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는 평화의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전도사가 되라’는 하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동포재단이 ‘평화의 섬’ 제주에 위치하게 된 것도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은 미래를 향해 다음과 같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우리 한민족의 화합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해외 한인회에서부터 우리 민족이 화합하며, 나아가서 남북으로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군사적 힘을 넘어 문화로써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BTS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달했듯이 이제 전 세계의 코리안들, 특히 차세대 청소년들은 한글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익히고 이를 전 세계의 친구들과 나누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코리안은 인간뿐 아니라 생태계, 지구를 이롭게 해야 합니다. 화려한 근대 물질문명의 폐해를 반성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의 전통적 삶의 양태야말로 차세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끝으로 한상(韓商)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해외 한상들이 조국의 발전과 인류 공영에 더 크게 기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외된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 연대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인류와 우리 동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환난을 잘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일에 동포들이 앞장서서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코리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재외동포재단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2 권두언 코리안이 세계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04 특집 미국 정가에 '코리안 우먼 파워' 돌풍
- 06 화제 문 대통령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
- 08 인터뷰 "한민족이 시대적·인류사적 과제 수행해야"
 김성곤 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10 글로벌 코리안 글로벌한상드림재단 이사장 맡은 정영수 CJ 고문
 영화 '미나리' 로 오스카상 노리는 재미동포 정이삭 감독
 말레이시아 백작 작위 받은 이마태오 KMT그룹 회장
- 12 한민족 공감 1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 13 한민족 공감 2 "방콕' 하며 영화와 공연으로 보는 디아스포라 문학... 소설·시·동화 3편
- 14 동포소식 남미 한류 팬 'K-엑스포 2020' 에 시선 집중 외
- 17 동포 캘린더 '고려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하는 내일' 경기도 순회 전시 외
- 18 유공 동포 탄생 140주년 맞은 실천적 지식인 신채호
- 19 주목! 차세대 미국 유명 스타들의 의상을 디자인하는 유나 양
- 20 지구촌 통신원 1 현대사까지 이어지는 중국 동북공정
- 21 지구촌 통신원 2 친구처럼 나란히 서 있는 이집트의 모스크와 교회
- 22 동포문학 수국 여행
 김백현 미국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OKF 뉴스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작품집 출간 외
- 25 기고문 재외동포 문학상의 감동
 신달자 시인
- 26 재단공지 12월 1~3일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정가에 ‘코리안 우먼 파워’ 돌풍 여성 3명 등 한국계 4명 연방하원 진출

친숙한 이름 순자·은주·영옥, 첫 입성… 앤디 김은 재선 고지 올라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여성 3명을 포함해 한국계 후보 4명이 당선 의예를 안았다. 1세기가 넘는 미주 한인사회 역사상 한국계 여성 의원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뿐 아니라 연방의원을 4명이나 확보한 것도 최초의 일이다. 현지에서는 올해가 미국 주류 정치권에 한국계가 대거 진출한 원년이자,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 정계에 ‘코리안 파워’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승전보를 알린 한국계 후보는 민주당의 앤디 김(38) 의원이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에 처음 입성한 그는 뉴저지주 제3선거구에 출마해 공화당의 데이비드 릭터 후보를 따돌리고 재선 고지에 올랐다. 한국계 2세인 김 의원은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전략참모, 국방부 이라크 담당 보좌관 등을 역임해 중동 전문가로 꼽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



1

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낸 ‘오바마 키즈’의 일원으로, 당시 부통령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의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스트릭랜드, 워싱턴주 첫 흑인 하원의원

한국계 여성 가운데서는 ‘순자’란 친숙한 한국 이름을 쓰는 메릴린 스트릭랜드(58) 후보가 가장 먼저 당선을 확정했다.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의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같은 당의 베스 도글리오 워싱턴주 하원의원을 눌렀다. 최초의 한국계 여성 연방의원이자 워싱턴주 첫 흑인 하원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한국인 김인민 씨, 아버지는 한국주둔 흑인 미군 윌리 스트릭랜드였다. 한 살 때 아버지가 버지니아주 포트리 기지로 배속돼 미국으로 건너왔다. 워싱턴대 경영학과를 거쳐 클라크애틀랜타대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노던 생명보험사, 스타벅스 등에 근무하다가 2018년 타코마 시의원으로 선출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불과 2년 뒤에는 타코마 시장에 당선돼 8년간 시정을 이끌었다. 타코마 시장으로는 첫 동양계이자 최초의 흑인 여성이란 기록도 남겼다. 시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았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선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규 교육을 마치지 못한 우리 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털어놓았다. 또 “이 나라에 이민자로 온 어머니의 힘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어머니의 인내력과 강인함을 본받고 싶다”고 밝혔다.

‘선거의 여왕’ 스틸, 무패 신화 이어가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65) 후보는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하원에 입성했다. 캘리포니아주 제48선거구에서 민주당 할리 루다 의원을 제쳤다. 서울 태생인 스틸 당선인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페퍼다인대를 졸업하고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뒤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한인 정치력 신장에 기여하고자 정치에 입문했다.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



2



3



4



5

(행정책임자) 선거 등 모두 5차례 선거에서 연승해 한인사회에서 ‘선거의 여왕’으로 통한다.

그는 트위터에 “힘든 싸움을 했고, 어렵게 승리했다. 유권자들의 지지에 더욱 겸손해지겠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돼 더 없는 영광이다. 이제 일하러 가자”는 내용의 당선 소감을 올렸다.

영 김 “미국의 약속 살아 있다는 것 보여줘”

마지막으로 한국계 당선인 대열에 합류한 영 김(한국명 김영옥·57)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에서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의원을 꺾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는 시스네로스 의원에게 쓴잔을 마셨다가 2년 만에 설욕에 성공한 것이다.

인천에서 태어난 김 당선인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USC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금융계에서 일하다가 의류 사업가의 길을 걸었다. 선거 컨설턴트이자 한미연합회 전국회장을 지낸 남편 찰스 김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13선을 한 친한파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21년간 근무하며 정치적 역량을 키웠고, 한미의원연맹 일을 도우며 한국 정계에도 이름을 알렸다. 2014년 한인 여성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트위터에 남긴 당선 소감에서 “우리 모두 단결해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함께 전진하기 바란다”면서 “나는 미국으로 온 이민자로서 공화당, 민주당 동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미국의 약속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안다”며 “미국은 한국에서 이민을 온 소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연방의원까지 할 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LA 한인타운이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34선거구에는 한국계 데이비드 김 후보가 출마했으나 석패했다. 김 후보는 현역인 데이비드 고메스의 원에게 6% 포인트 차로 졌지만, 정치 신인으로서 상당히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6



7

1.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과 어머니 김인민 씨.
2. 연방하원 재선 고지에 오른 앤디 김.
3. 워싱턴주 첫 흑인 하원의원 기록도 세운 메릴린 스트릭랜드.
4.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미셸 박 스틸.
5. 리턴매치에서 설욕한 영 김.
6. 미셸 박 스틸 당선인이 트위터에 올린 소감.
7. 영 김 당선인이 트위터에 올린 소감.

문 대통령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 “인류 생존과 한국 미래 위해 가야만 하는 길”

국회 연설 이어 전략회의 등 급속 행보...환경단체·유엔 등 호평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석탄 발전(發電)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산업단지)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흡수량’이 탄소 중립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555조8천억 원에 이르는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밝혔다.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 중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기후 위기에 맞서 행동한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30년 뒤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보다 향후 10년 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과학자들과 시민사회에서 줄기차



1

게 요구해 왔던 것”이라며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매우 느슨하게 설정된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도 “2030년 이전에는 탈석탄과 탈내연기관을 완료할 계획이 제시돼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배출’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매우 큰 힘을 얻었다”면서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한국의 모범적인 ‘그린 뉴딜’에 이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매우 긍정적인 발걸음”이라고 반겼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튿날 부산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11대 경제 선진국으로서 체면이 섰다”고 호평하면서도 “문제는 발표가 아니라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1월 10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2050 탄소 중립 선언은 매우 흥미롭고 멋진 행보”라면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2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무거운 약속을 한 것”이라며 “화석연료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도전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또 “저탄소경제는 이미 새로운 경제질서”라면서 “주요 국가의 환경 규제를 고려하면 기업도 저탄소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런 점에서 “탄소 중립을 오히려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산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중 환경장관 회담 등 국제 협력에도 나서

11월 11일에는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2050 저탄소 발전전략회의’가 열렸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약속이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라고 전제한 뒤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나라 걸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 따로 가다가는 언제고 탄소 국경세라든지 금융, 무역 등의 규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차와 수소경제, 연료전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디지털 능력 등과 함께 그린 뉴딜을 시작했다는 강점이 있다”면서 각



3



4

부처가 자신감과 확실한 의지를 갖고 분명한 목표를 정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날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를 열어 국제 협력에도 시동을 걸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9월 유엔총회에서 ‘206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어, 양국 정상은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국자 간 협의였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및 기술교류 협의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1.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뒤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2.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1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탄소 중립 비전에 관한 관계부처 장관 보고를 받고 있다.

김성곤 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민족이 시대적·인류사적 과제 수행해야” “민간 동포 네트워크 아쉬워… 재단 위상 업그레이드 불가피”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과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개선에 힘쓴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재외동포재단의 새 수장을 맡았다. 11월 2일 제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그는 4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재외동포재단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이사장은 경기고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템플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이후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 등을 거쳐 전남 여수에서 제15대와 17~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또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회장,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는 이사장 임명을 발표하며 “재외동포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간의 연대와 협력력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해진 상황에서 오랜 기간 재외동포 정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김 이사장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민족 정체성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겠다”

김 이사장은 취임식 직후 ‘재외동포의 창’ 편집진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소감과 포부를 털어놓았다. 말투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지만 풍부한 식견과 오랜 경륜이 배어났다.

“재외동포재단의 역량을 한 단계 높여 한민족이 시대적, 인류사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에 앞서 재외동포를 포함해 한민족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규정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힘쓰겠습니다.”

김 이사장은 미국 해군정보국 정보분석가로 일하며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996년부터 수년간 옥고를 치른 미국 시민권자 김채곤(미국명 로버트 김) 씨의 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때 재미동포들이 구명운동을 벌였고, 한국에서도 후원 모임이 결성됐다.

“재단 이사장 임명 소식을 들었을 때 재외동포인 형이 생각나지 않았느냐”고 묻자 “형의 구명운동에 나서면서 재외동포 분야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적인 배경 때문에 정부가 나를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혈





3



4

1. 김성곤 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11월 4일 제주 서귀포시 재외동포재단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11월 4일 취임식에서 직원 대표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3. 김성곤 제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11월 4일 취임식 직후 집무실에서 '재외동포의 창' 편집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4.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오른쪽)이 1996년 군사기밀 누설죄로 체포된 형 김재곤(로버트 김) 씨와 함께 찍은 사진.

통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미국 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우리의 정서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도 몽골 침입으로 민족 정체성 자각”

그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언급한 뒤 “우리 민족도 몽골의 침략으로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단군신화와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의 민족 정체성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면서 “해외에 있는 동포를 포함해 남과 북이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산(離散)이란 말로 번역되는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한다. 이후 그 의미가 확장돼 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집단, 또는 그 거주지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유대인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세계유대인의회’(World Jewish Congress)는 이스라엘 정부가 나서기 곤란한 현안이 있을 때 나서서 힘을 보탬니다.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민간 네

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각국 한인회의 연대 조직을 만들어 세계 유대인회의처럼 키워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한인회가 지금처럼 자주 내부 분란에 휩싸이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야죠.”

■ “온라인 기반의 한상대회 상설화 방안 검토하자”

김 이사장은 “한인 기업인이 모여 펼치는 한상(韓商)대회가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취소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추가해 한상대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재외동포재단 규모와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게 불가피하며 청(廳)이든 처(處)든 위원회든 재단의 위상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네트워크를 이루지 못하고 모국과의 연대가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죠. 지금은 한민족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철학을 재외동포재단이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한민족이 떠맡은 역할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창**



정영수 글로벌한상드림재단 이사장

글로벌한상드림재단 이사장 맡은 정영수 CJ 고문 싱가포르 발판으로 성공 일군 뒤 사회공헌에도 헌신

글로벌한상드림재단은 한민족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2016년 한인 경제인들이 만든 사회공헌 단체다. 내국민과 재외동포 청년의 자립을 돕는 장학 사업,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사업, 세계한상대회 국내 개최 지역에 장학금 전달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한상드림재단은 11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정영수(74) CJ그룹 글로벌 경영고문을 신임 이사장으로 위촉했다. 그는 2019년 1월 글로벌한상드림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고 그해 10월 부이사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수장까지 맡은 것이다.

정 이사장은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한국마벨에 입사해 1977년 홍콩 주재원으로 해외 생활을 시작했다. 1984년 싱가포르 법인장을 끝으로 셸러리맨 생활을 마감한 뒤 그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비디오·오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는 진맥스를 창업했다.

동남아 무대에서는 같은 업종에서 수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눈부신 성장가도를 달리다가 일본 경쟁업체들의 가격 담합 탓에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독심과 배짱으로 위기를 극복해 1991년 수출산업포장을 받았다. 한국 상품만을 고집스럽게 팔았고 태국 등지에도 법인을 설립했다.

2009년에는 CJ그룹 글로벌 경영고문으로 취임했다. 이때부터는 CJ 해외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한편 동남아 동포사회와 현지 소외계층 지원에 헌신했다. 2013년부터 해마다 베트남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생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미얀마로도 지원 대상을 넓혔다.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오케스트라 창단에 힘을 보태는가 하면 CJ그룹 동남아 현지법인이 동포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앞장섰다. 지난해부터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총재도 맡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 베트남 문화훈장, 한상 기업 CEO 대상 등을 받았다. 틈나는 대로 글을 써 수필집 '밖으로 밖으로, 신나는 인생', '70 찾잔' 등을 출간하기도 했다.

영화 '미나리'로 오스카상 노리는 재미동포 정이삭 감독 한인 가정 그린 자전적 이야기로 영화제 호평 줄이어

자전적 영화 '미나리'를 선보인 재미동포 2세 정이삭(미국명 리 아이작 정·41) 감독의 활약이 눈부시다. 그가 유타대 영화영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틈틈이 작품 활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미나리'는 올 2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세계 최대·최고의 독립영화 축제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과 관객상에 뽑혔다. 이 영화는 지난 10월 아시아 최대의 영화 잔치인 부산국제영화제에 초대된 데 이어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스페인 바야돌리드영화제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배우 윤여정은 내년 1월 21일 열리는 미국 고섬영화제 최우수여자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대중문화매체 버라이어티는 "'미나리'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내년 3월 미국 아카데미영화제에서 또 한 번 한



국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다. 제이컵(스티브 연)은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다가 비옥한 땅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며 시골 벌판에 트레일러 집을 마련하고 땅을 일궈 한국 채소들을 기른다. 아내(한예리)와의 갈등과 장모(윤여정)의 헌신 등 영화 속에는 콜로라도에서 태어나 아칸소에서 자란 정 감독의 자전적 경험이 녹아 있다.

정 감독은 “실존 인물에 영감을 받아 시나리오를 썼지만, 배우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정 감독처럼 이민자 후손인 스티브 연이 프로듀서 역할도 맡았다.

정 감독은 르완다 내전을 무대로 한 데뷔작 ‘문유랑가보’가 2007년 프랑스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문유랑가보’가 미국 뉴욕 링컨센터와 현대미술관에서 상영되자 뉴욕타임스는 “서구인이 아닌 르완다인의 시각에서 조명한 영화”라며 호평했다. 두 번째 장편 ‘러키 라이프’는 2008년 칸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아틀리에’에 뽑혔다.



영화 ‘미나리’를 연출한 재미동포 정이삭 감독

말레이시아 백작 작위 받은 이마태오 KMT그룹 회장 한국 식품 300여 종 수입...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

말레이시아의 한인 사업가 이마태오(52) KMT(Korea Malaysia Trading)그룹 회장이 말레이시아 국왕 툰 모히드 알리 루스탐으로부터 백작(다토) 작위를 받았다. 말레이시아 국왕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 이 작위를 수여해왔다. 한국인 가운데서는 권병하 말레이시아 헤니권코퍼레이션 회장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각각 2006년과 2009년에 받았다.

충남 아산시 온양에서 나고 자란 이 회장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이주했다. 말레이시아 서다야칼리지를 졸업한 뒤 귀국해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 1994년 무역업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자동차 액세서리를 파는 오퍼상으로 나섰다. 우연히 만난 지인의 도움으로 식품유통업에 뛰어들었다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말레이시아 백화점에서 한국 라면을 끓여 시식하게 하는 판촉 행사를 벌였는데, 이를 맛보려는 고객이 장사진을 이뤘다. 그 뒤 ‘한국 식품전-코리아 푸드페어’란 이름으로 연례행사를 열고 있다. 이슬람권 국가라는 특성을 고려해 한국 업체들에 할랄 인증(이슬람용 식품 공식 인증)을 받도록 한 것도 주효했다. 수출 공로로 2012년 무역의날에 산업포장을 받았다. 현재 KMT는 300여 종의 한국 식품을 말레이시아에 수입해 유통한다. 온라인과 흡소핑 관련 자회사, 마트, 외식 사업도 운영하며 패션 분야에도 뛰어들었다.

“한국 음식은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 주저하다가도 한번 맛을 보면 그 매력에 빠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권합니다. 한국 식품의 우수성과 때마침 동남아에 불어닥친 한류 덕을 봤죠.”

이마태오 회장은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쿠알라룸푸르지회 수석부회장으로 일하며 동포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차세대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등 현지 사회공헌활동에도 열심이다. **장**



말레이시아 한상 이마태오 KMT그룹 회장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제18회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에 41개국 270여 명 참여

교육부는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주관으로 11월 5~7일 인천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제18회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어 교사, 한국어 교육의 중심’이라는 주제 아래 41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관계자 270여 명이 참가해 한국어 교육 확대와 질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2003년 시작된 이 대회는 재외동포 대상 교육자를 위한 행사로 출발했다. 이후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재외 교육자와 한국어 과목 채택에 관여하는 외국의 교육행정가들까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로 확대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초·중·고교에서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곳은 30개국 1천635개교에 이른다. 베트남 하노이외국어대와 러시아 모스크바외국어대 등 8개 대학은 교원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인도·파라과이·우크라이나도 과정 개설을 준비 중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대신에 대학 교원, 초·중·고 교원, 교육 행정가, 정부 관계자 등 참여 대상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학술대회, 전문 연수, 정책 연수를 병행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였다.

첫날 개회식에 이어 박동호 경희대 교수가 ‘문법과 어휘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란 제목으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축하 공연 순서에서는 젊은 국악인 이자람이 ‘심청가’와 ‘이방인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교육부 최보영 과장은 ‘재외 한국어 교사가 알아야 할 한국어 교육 정책’을 설명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지 한국어 교육 현황과 국가별 제2외국어 정책’을 주제로 토론도 펼쳤다.

이틀날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화 발표와 강연이 진행되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재외 한국어 교육자 10명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고, 국내 대학 교원과 전문가 6명은 ‘한국어 콘텐



인천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제18회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츠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특성’과 ‘온라인 학습 사이트 개발 사례 및 활용 방법’을 강의했다.

마지막 날에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소우주’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참가자들을 우리 문학, 노래, 미술의 세계로 안내했다. 한국 역사와 문화를 영상으로 선보이는 순서도 마련되었다. 폐회식에서는 가수 인순이가 ‘재즈’, ‘친구여’, ‘거위의 꿈’을 선보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미국 도허티밸리교의 주은희 교사는 “전 세계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국어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감동했다”고 소감을 털어놓았다. 독일의 노유경 교사는 “시차 때문에 몸은 힘들었지만 항공로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면서 전 세계 한국어 선생님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폴리텍대의 응우옌티튀응아 씨는 “강의를 듣고 한국어 모음과 자음의 특성을 좀 더 깊이 이해했다”면서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장**

‘방콕’ 하며 영화와 공연으로 보는 디아스포라 문학... 소설·시·동화 3편

11월 금요일마다 4회에 걸쳐 ‘2020 이산문학주간’ 행사

디아스포라(이산·離散)의 삶과 문학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2020 이산문학주간’이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네 차례 열렸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얻어 ‘읽는 작품’을 ‘보는 작품’으로 꾸민 영화와 공연, 그리고 연구자들의 토론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방구석 공연 보기’란 제목 아래 디아스포라 삶을 담은 문학을 소재로 다양한 형식의 영상예술 작품을 선보였다. 서울국제작가축제와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의 총연출을 맡았던 연출가 겸 극작가 최창근 감독이 제작을 맡았다.

6일 ‘소설과 영화의 만남’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작품은 조해진의 장편소설을 단편영화로 꾸민 ‘단순한 진심’이었다. 2004년 등단한 조해진은 이 작품으로 지난 10월 제11회 김만중문학상을 받았다.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계 극작가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행을 택하며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다. 2019년 화제를 모은 독립영화 ‘벌새’에 출연했던 배우 이승연이 주인공 나나 역을 맡았고, 원작자 조해진이 ‘깜짝 출연’했다.

13일 ‘시와 영화의 만남’에서는 재일동포 김시종의 시집 ‘잃어버린 계절’이 단편영화로 재탄생했다. 그는 1929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시인으로 이중의 차별을 겪는 재일 조선인의 비극적 운명에 맞서왔다. 한 많은 고통과 슬픔을 아름다운 시어(詩語)로 표현해온 시인의 삶과 문학 세계를 배우들의 시 낭송으로 되살려냈다.

27일 ‘동화와 마음의 만남’에서는 재미 작가 린다 수 박의 동화 ‘사슴파리 한 조각’을 마음(무언극·無言劇)으로 표현했다.



11월 20일 열린 심포지엄 ‘톡톡 이산문학’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덕규(단국대), 정은귀(한국외대), 구재진(세명대), 권성우(숙명여대) 교수.

12세기 고려시대, 주인공 목이가 도공(陶工) 민영감의 작품을 궁궐에 보이겠다는 일념으로 사슴파리 한 조각을 손에 쥐고 먼 길을 떠나며 겪는 이야기를 담았다. 2002년 미국도서관협회 뉴베리상 아동문학 부문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20일 심포지엄 ‘톡톡 이산문학’은 해외 한인 문학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디아스포라 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였다. 박덕규(단국대), 정은귀(한국외대), 구재진(세명대), 권성우(숙명여대) 교수가 참여해 1부에서 해외 한인 문학과 해외 한인 동포 이주의 전반적인 역사와 흐름을 짚어보고, 2부에서는 ‘동아시아의 디아스포라적 삶과 예술’을 주제로 재일 한인 문학과 조선족 문학을 조명했다.

행사 이후에도 모든 프로그램을 한국문학번역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ltkorea)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공식 웹사이트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www.diasporabo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남미 한류 팬 'K-엑스포 2020'에 시선 집중

10월 23~25일 브라질 상파울루서 온라인 중계

남미 지역 최대의 한류 페스티벌 'K-엑스포(Expo) 2020'이 10월 23~25일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 열렸다. 2017년부터 4년째 이어온 K-엑스포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잔치로 꼽힌다. 첫째 6천여 명을 시작으로 2018년 1만4천여 명, 2019년 1만7천여 명 등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져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한류를 즐기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은 문화원 안에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3일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유튜브 채널(Centro Cultural Coreano no Brasil)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kccbrazil)으로 생중계했다.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K-엑스포 2020'에서 MC를 맡은 브라질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한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명 K팝 아이돌 그룹 SF9의 온라인 라이브 팬 미팅과 콘서트,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홍보 영상, 브라질 유명 한류 유튜브와 함께하는 한식 프로그램, 서울 인사동과 경복궁 가상 체험 관광, 브라질 출신 씨름 선수가 소개하는 한국 씨름 워크숍, 인디밴드 아도이와 빌리카터의 공연, '댄스컬-사랑하면 춤을 춰라:사춤2', 해금 연주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선보였다. 브라질 한류 동호회들이 한국의 웹툰·애니메이션·만화 콘텐츠, 한국 유학

경험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김완국 문화원장은 "한류 문화를 직접 체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팬이 많기는 했지만, 온라인의 장점 덕분에 공간 제약 없이 어디서든 즐기고 참여하는 색다른 기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오타규 오사카총영사, 일본어로 '총영사 일기' 출간

페이스북에 연재한 글 216편 수록... 일본인 지인이 번역

오타규 주일본 오사카(大阪)총영사가 현지 출판사를 통해 일본어로 외교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책 '총영사 일기'를 출간했다.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초청연구위원과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지낸 오 총영사는 2018년 4월 부임 이래 페이스북에 '오사카 통신'이란 이름으로 꾸준히 써온 글 가운데 216편을 골라 책으로 엮었다. 페이스북 글을 눈여겨본 그의 일본인 지인이 일본어로 번역해 직접 블로그에 올렸고, 책 출간까지 도왔다.

'간사이(關西)에서 찾은 한일 교류'란 부제가 달려 있는 '총영사 일기'는 관할지인 오사카와 교토(京都), 와카야마(和歌山), 나라(奈良), 시가(滋賀) 등의 지자체장, 대학 총장·교수, 경제계·



오타규 오사카총영사(왼쪽)와 그가 펴낸 '총영사 일기' 표지.

언론계 인사, 재일동포 지도자 등과 교류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겪은 경험과 단상으로 이뤄져 있다.

조선이 일본으로 파견한 외교사절단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비롯해 교토 도시샤(同志社)대 교정에 외롭게 서 있는 윤동주 시비,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려는 한국인을 학살한 우키시마(浮島)호 희생자 위령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침략한 왜군이 조선인의 귀를 잘라 본국으로 보내 만들었다는 귀무덤의 위령제 등을 보고 느낀 감정도 솔직하게 담았다.

오사카 이쿠노구(生野) 코리아타운, K-팝 댄스대회, 한글 이야기 대회 등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 젊은이들을 보면서 양국 간의 친예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지는 한일 간 교류의 맥을 발견했던 일화도 털어놓았다.

이스탄불총영사관 ‘한국전 70주년 기념사진 전시회’

참전용사 활약상과 한국·터키 관계 담은 사진 100여 점 선보여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주이스탄불총영사관은 재터키한인회 및 참전용사기념사업회와 함께 10월 23일부터 ‘한국전 70주년 기념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스탄불시청과 펜딕구청·사르예르구청의 협조로 25일까지 펜딕가지 파사 파크에서 관람객을 만났고, 30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사르예르 메르케지 메이단으로 옮겨 전시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6·25전쟁과 터키 참전용사, 한국과 터키 양국 관계를 담은 사진 100여 점과 관련 기록물이 선보였다. 주이스탄불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전 70주년의 의미와 양국의 우호 관계를 널리 알리고, 터키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으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해마다 이스탄불을 비롯한 관할 지역 참전용사와



이스탄불총영사관이 개최한 ‘한국전 70주년 기념사진 전시회’ 포스터.

가족을 초청해 위로·감사 행사를 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행사를 취소했다. 그 대신 지난 7월 참전용사 감사 메시지 배너를 제작해 이스탄불 주요 지역에 설치했으며, 고령의 참전용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한국산 KF94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주터키 한국대사관은 6월 25일 수도 앙카라의 한국공원에 세워진 6·25 참전 기념비에서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를 열었다.

터키는 6·25가 발발하자 1만4천936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전투병을 보낸 유엔군 참전 16개국 가운데 미국·영국·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이뤄진 뒤에도 1966년까지 의정부에 주둔하며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세계문화협회 ‘제1회 코리아 데이 세계문화축제’ 개최

이재용·BTS·봉준호 등에 ‘제1회 코리아 데이 어워드’ 시상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문화 홍보와 국제 교류에 앞장서는 세계문화협회는 11월 13일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제1회 코리아 데이(Korea Day) 세계문화축제를 열었다.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캄보디아와 러시아를 비롯한 CIS(독립국가연합)에서도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됐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고구려 북춤으로 막을 올린 뒤 바다이나나 총회장

의 대회를 시작으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 국민의 힘 박진 국회의원과 김석기 재외동포 위원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세계문화협회는 10월 3일 개천절을 ‘코리아 데이’로 선포하고 ‘제1회 코리아 데이 어워드’ 시상식을 열었다. 이 상은 2020년



11월 13일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열린 세계문화축제에서 ‘코리아 데이’ 선포식과 ‘제1회 코리아 데이 어워드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다.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두드러진 성과를 낸 개인 또는 기업에 750만 재외동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는 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IT·과학), 방탄소년단(K팝), 봉준호(영화), 조성진(클래식), 손흥민(스포츠),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농식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료), 정의선 현대자동차 대표(환경) 등이 수상자다.

이날 행사는 가수 소하의 축하 무대에 이어 세계문화협회 주니어 홍보사절단 합창단과 탈북자 자녀로 구성된 와글와글 합창단이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기원하며 만든 캠페인송 ‘사우스 & 노스 빅토리 코리아(South & North Victory Korea)’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뉴질랜드 'K-컬처 페스티벌'... 접촉 못해도 접속 열기는 뜨거워

한국인 요리사가 잡채 · 불고기 · 떡볶이 요리법 소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한국 문화 축제인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15년부터 해마다 웰링턴시청, 웰링턴한인회와 공동으로 이 행사를 마련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facebook.com/kculturenz)으로 진행했다.

'K-컬처 페스티벌'은 한류의 영향 덕분에 웰링턴의 대표적인 문화축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한국 요리사와 함께하는 K-푸드'와 'K-팝 콘테스트'가 현지인 한류 팬들에게 특히 인기를 모았다.

'K-푸드' 프로그램에서는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식재료로 뉴질랜드인들이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잡채, 불고기, 떡볶이 등의 요



'K-푸드'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요리사가 잡채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리법을 하루에 하나씩 차례로 공개했다. 'K-팝 콘테스트'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10개의 댄스 팀과 5개의 노래 팀이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뒤, 예선전 점수에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와 댓글 수를 종합해 우승자를 가렸다. 지난해 우승자 MDC는 개막식 영상을 올려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상진 뉴질랜드 대사는 온라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양국 간 이해와 친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K-팝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참가자들에게 특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앤디 포스터 웰링턴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뉴질랜드인들이 K-팝 문화의 놀라운 면모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역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들이 카메라로 포착한 한국

주루마니아 한국대사관, 수교 30주년 맞아 온라인 사진전

주루마니아 한국대사관은 한국과 루마니아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10월 28일부터 한 달간 '루마니아 외교관들이 바라본 한국'이란 제목으로 온라인 사진전을 개최했다. 루마니아대사관은 공관의 페이스북 계정(<https://www.facebook.com/media/set/?set=a.4127389163986872&type=3>)을 통해 초대 이지도르 우리안(1990~1995)부터 미하이 치옴펙(2016~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현직 주한 루마니아 대사 6명이 한국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찍은 사진을 1·2부로 나누어 선보였다.

1부에서는 역대 루마니아 대사들이 직접 촬영한 각종 외교활동 사진을 전시했다. 공식 행사에 참석해 한국 정부 관계자나 주한 외교사절들과 함께한 장면을 비롯하여, 산업 시찰 모습, 대사



우리안 초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왼쪽)가 1990년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관저에서의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 사모 관대까지 갖춘 한복 차림, 한국 주요 명소 풍경 등도 만나볼 수 있다.

2부는 5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 컬린 파비안(2012~2016)이 한국 구석구석을 돌며 촬영한 사진으로 꾸며졌다. 환경·문화유산·도시·사람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했다. 아마추어 수준을 뛰어넘는 촬영 솜씨와 한국을 향한 진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파비안 전 대사 인터뷰와 김

용호 주루마니아 대사의 축하 영상도 곁들였다.

루마니아 대사관은 "한국에서 근무한 전·현직 루마니아 대사들이 찍은 양국 외교의 중요한 순간과 함께 한국 산하와 한국인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하며 양국 간의 이해와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려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하는 내일’ 경기도 순회 전시

고려인지원단체 너머(이사장 신은철)는 11월 초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도내 각 지역에서 ‘찾아가는 사진 전-고려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하는 내일’을 개최하고 있다. 11월 9~13일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1층 로비를 시작으로 김포시 김포아트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안산시 원곡초등학교를 5일씩 순회한다. 1863년 연해주 정착에서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를 거쳐 오늘날까지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다. 제1회 고려인 청소년 사진 축전 출품작도 만날 수 있다.



10개국 한인 청년 지도자 22명, 고국 체험하며 정체성 함양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총재 김덕룡)은 11월 9~15일 제8차 세계 한인청년 지도자 대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러시아·우즈베키스탄·미국·영국·독일·브라질·중국·베트남·미얀마·필리핀 등 10개국 22명의 한인 청년 지도자가 서울을 비롯해 경기 용인·파주, 경북 경주, 전남 완도, 충남 부여 등지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했다. 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유명 인사의 특강을 듣고, 태권도와 사물놀이 등도 배웠다.

지구촌동포연대 “우토로마를 역사 보존할 자료 찾습니다”

지구촌동포연대(KIN)는 재일동포 차별의 상징이던 일본 교토(京都)부 우지(宇治)시 소재 우토로마와 관련한 기록물을 10월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기증받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941년 일제는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고,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귀국하지 못한 조선인들이 정착촌을 이뤘다. 일본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철거 위기에 몰렸다가 일본 시민단체와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2018년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기증받은 기록물들은 마을에 들어설 우토로평화기념관에 보존될 예정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 12월 10~11일 온라인 해외취업박람회

68개국 142개 도시에 지회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12월 10~11일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2020 온라인 해외취업박람회’를 연다. 사전 신청한 구직자와 월드옥타 회원사가 화상으로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미국·일본·베트남·호주 진출 희망자를 위한 취업 설명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기 코칭 프로그램, 해외 취업 관련 특강, 면접과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도 마련한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옥타의 해외한인기업채용관(okta.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첫 한민족상에 박승의·공노연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은 ‘2020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전’을 열어 한민족상 수상자로 ‘가라후토(樺太·사할린의 일본식 표기)로 팔려 간 이쁜 고모’를 출품한 박승의 전 러시아 사할린국립대 교수와 26년간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를 이끌어온 사할린한국어교원협회의 공무원 부회장을 공동 선정했다. 이 공모전은 북방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200여 편이 응모했으며,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민족상을 신설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웹 세미나 열어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장 조술연)는 11월 20일 오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관련 연구 동향과 해결책 등을 논의하는 ‘제2차 코로나19 웨비나(웹 세미나)’를 열었다. 박종연 포피트 암센터 교수, 린다 리 위스콘신 의과대 교수, 윤주홍 피츠버그 의과대 교수, 김택수 제이나나 테라퓨틱스 박사 등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웹사이트(webinar.ksea.org/covid-19-2)에서 참가 신청을 받아 KSEA 회원은 물론 한국 과학기술자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탄생 140주년 맞은 실천적 지식인 신채호

언론인 · 사학자 ·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다가 뤼순감옥에서 서거

오는 12월 8일은 단재 신채호의 탄생 140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는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다. 성균관에서 공부한 양반 출신이면서도 진보주의적 세계관을 지녔고, 문필가이면서도 실천하는 행동가였다.

신채호는 1880년 지금의 대전광역시 중구 단재로에서 태어났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성면 귀래리로 옮겨 조부에게서 한학을 배웠다. 10세에 자치통감을 해독하고 14세에 사서삼경을 독파해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1898년 성균관 경학과에 입학해 3년 과정을 마친 뒤 청주에서 교육계몽활동을 벌이다가 1905년 상경해 본격적인 구국운동에 나섰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 필봉을 휘두르는 한편 1907년 신민회 결성에 참여했다. 중국 양계초의 '이태리 건국 삼결전'을 번역하고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동국거걸 최도통전' (최영 전기) 등을 신문에 연재했다.

망국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신민회원들과 함께 1910년 5월 평양 오산학교에 들렀다가 압록강을 건넜다. 오산학교에서 만난 12살 아래 이광수는 "오직 비범한 것은 그의 눈이었다... 말 속에는 추상같은 기개가 들어 있었다"고 그를 평했다.

첫 해외 활동무대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였다. 대동공보 논설을 집필하다가 대양보와 권업신문 주필을 맡았다. 1913년 중국 상하이에서 6개월간 머문 뒤 만주로 옮겨 독립운동을 펼쳤다.

그는 연해주와 만주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 유적을 답사하며 모은 자료를 토대로 '조선상고사'를 틈틈이 집필해 훗날 조선일보에 연재했다. 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해석하고,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 천도를 '우리나라 1천 년 역사상 최대 사건'으로 규정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 이광수가 평한 대로 눈빛이 형형하다(좌). 신채호 선생 탄생 139주년을 맞은 2019년 12월 8일 대전시 서대전광장에서 동상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그는 민족주의자로 출발했으나 1차대전과 러시아혁명을 거치며 아나키즘(무정부주의)에 입각한 민중혁명론을 받아들였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은 3·1운동을 깎아내리는가 하면, 임시정부 결성에도 참여했다가 이승만의 외교론과 안창호의 준비론에 실망해 결별했다.

그는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그 정신은 1923년 의열단장 김원봉의 요청을 받고 쓴 조선혁명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1928년에는 중국·일본·베트남·인도·대만 등 6개국 대표가 베이징에서 결성한 무정부주의자 동방연맹에 조선 대표로 참석했다.

이들은 위조 어음을 만들어 폭탄공장을 짓기로 했다. 신채호는 이를 찾으러 대만에 갔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뤼순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36년 2월 21일 눈을 감았다.

그는 "내가 죽으면 시체를 왜놈들이 밟지 못하도록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지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모국으로 옮겨 청주의 집터에 안장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창](#)

“패션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하고 싶어요”

미국 유명 스타들의 의상을 디자인하는 유나 양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의 2회 우승자 줄리안 허프, TV드라마 시리즈 ‘베벌리힐스 90210’의 제시카 론디스, 그래미상 6차례 수상에 빛나는 컨트리 가수 캐리 언더우드, 전설적인 슈퍼 모델 캐럴 앨트, 리얼리티 TV쇼로 화제가 된 카다시안 패밀리….

이들의 공통점은 유나 양(한국명 양정윤·42) 씨가 디자인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다. 여성복 브랜드 ‘유나양(YUNAYANG)’은 현재 전 세계 15개국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프랑스의 세련된 패션 기법에 현대식 디자인을 가미한 고가품이다.

양 씨는 세계 최정상급 패션 디자이너들의 경쟁이 불을 뿜는 ‘뉴욕 컬렉션’에서 2010년부터 해마다 봄과 가을에 신작을 발표했다. 지난봄에는 뉴욕 컬렉션이 취소돼 건너뛰었지만 올겨울 열릴 무대에서는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밝은 색조의 옷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어학 연수차 이탈리아 밀라노에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패션을 공부했다. 마랑고니 패션스쿨과 영국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마틴을 거쳐 2010년 뉴욕 패션위크에 디자이너로 데뷔했다.

양 씨는 데뷔 무대에서 ‘약속된 승리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뉴욕 매거진 ‘9인의 디자이너’, 뉴욕 맨해튼 매거진 ‘라이징 스타 디자이너5’, 모제 두바이 매거진 ‘주목해야 할 5인의 인터내셔널 디자이너’ 등에 뽑혔고, 한인 최초로 패션 일간지 ‘우먼스 웨어 데일리’(WWD)에 커버스토리로 소개됐다.

양 씨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영화사 20세기폭스와 루커스필름, 록밴드 시빌트와이라이트 등과 함께 협업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2016년에는 한국인 디자이너 최초로 일본 도쿄의 이세탄 신주쿠 백화점에 액세서리 컬렉션을 입점시켰다. 이듬해 오



재미 패션 디자이너 유나 양 씨가 무대에서 선보일 의상을 준비하고 있다.

사카 한큐 백화점도 그를 ‘4인의 주목할 만한 디자이너’로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스위스의 생모리츠와 모나코에도 진출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서울과 부산의 롯데백화점에서 뉴욕 컬렉션 의상을 판매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멘토로 나서기도 했다.

오늘날의 위치에 오기까지 역경도 많았다. 재미동포에 대한 편견이 담긴 “부모님은 세탁소 하시니”라는 말은 예사였다. “너처럼 하면 단 한 벌도 못 팔 거야”라는 면박도 많이 받았다. 그래도 “한국인 토박이 디자이너로서 패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다”는 각오로 버텼다고 한다.

양 씨는 10월 귀국해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K방역’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방탄소년단(BTS)도 이름을 떨치는 이때 서울에 있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 젊은 이가 많이 모이는 대학가, 전철역, 시장 등을 다니며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특히 한옥을 눈여겨보고 있다. 

현대사까지 이어지는 중국 동북공정

고대사뿐 아니라 일제·한국전 역사도 중국 중심 해석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10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국 내전에 미국이 무력으로 간섭해 중국이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를 결심했다”고 연설했다.

역사적 사실과 한국인의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점을 중국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밝히자 한국에서는 거센 비판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별다른 사과나 정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중국 내 한국전쟁 관련 기념관들은 시 주석의 발언과 비슷한 입장을 계속 선전하고 있다.

70년 전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중국이 한국 고대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 한 2000년대 초중반의 동북공정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한국인들은 중국을 강하게 성토했고 정부도 중국 당국에 항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자 이제는 버젓이 동북공정의 결과물을 내세우고 있다.

만리장성이 허베이성 산해관을 넘어 동북 3성과 한반도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랴오닝성 박물관에 전시된 지도에는 고대 만리장성이 평양 부근까지 표시돼 있다. 또 명나라 때 장성은 북·중 접경인 랴오닝성 단둥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단둥에 장성 관광지를 만들고 ‘만리장성의 동쪽 시작점’으로 선전하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항미원조열사기념관에는 ‘미국이 북한을 침략했고 중국이 대비책을 준비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호산장성. 중국은 명나라 때 장성이 이곳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관광지를 조성해 선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랴오닝성 박물관은 북만주에 세워진 고대 부족국가 부여에 대해 “한나라와 군신 관계를 유지했다”고 기술하는가 하면 당나라 시기를 다룬 지도에는 발해가 당의 통치 지역이었던 것처럼

‘발해도독부’로 표기해놓았다.

중국은 최근 들어 고대사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자국 역사로 편입하는 한편 공산당 투쟁사 위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동주를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표기했으며, 청산리전투 기념비 건립 취지문도 떼어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공산주의 홍색(紅色) 교육과 소수민족의 한족화(漢族化)를 강조하는 가운데 미·중 갈등 국면을 맞아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워 내부 결집을 다지려는 것이다.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자국 국경 안에 있는 56개 민족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로 보는 통일 다민족국가론을 강화하고 있다.

시 주석은 9월 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집단학습에서 “고고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신적 힘”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고고학 성과에 대한 발굴·정리·해석사업을 잘하고, 국제 고고학계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대를 넘나들고 민족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중국 중심주의 역사관은 수천년 전부터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우리 민족과 마찰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더욱이 현대사에 관해서는 남북한이 공동 대응하기도 쉽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차병섭 연합뉴스 선양 특파원

친구처럼 나란히 서 있는 이집트의 모스크와 교회

첨예한 종교 갈등 속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공존은 가능할까?

최 근 유럽에서 잇달아 발생한 테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계기로 이슬람권과 프랑스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 벌어진 참극이다.

이집트는 이슬람 수니파 신도가 대부분이고 콥트교 기독교인의 비중은 10~14%로 추산된다. 콥트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분파이다. 콥트교도들은 오랫동안 정치·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콥트교도의 마음을 잡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2015년 1월 이집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성탄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내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카이로 인근 신행정수도에는 대형 콥트교회와 모스크(이슬람사원)가 함께 세워졌다. 이집트 언론에 따르면 이 교회는 8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중동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다른 지역에도 교회가 꾸준히 건설되고 있다. 지난 10월 이집트 내각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이집트에서 교회나 예배 건물 1천738채가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집트에서는 교회와 모스크가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엘시시 대통령은 야권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라는 비판을



이집트 수도 카이로 남부 마아디에 모스크(오른쪽)와 콥트교회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좌). 이집트 신행정수도에 세워진 중동 최대 규모의 교회.

받지만, 종교적으로는 개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종교 갈등이 사회 안정을 해쳐 정권 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집트에서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중 봉기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축출되고 이듬해 이슬람주의자인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종교 갈등이 심했다. 이슬람교도들이 콥트교회를 공격했고, 이슬람교도와 콥트교도의 충돌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경제 악화와 종교 갈등으로 혼란이 커지자 이집트 군부는 2013년 7월 무르시 대통령을 1년 만에 쿠데타로 축출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엘시시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도 종교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2017년 4월 콥트교회들을 겨냥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40여 명이 숨졌

다. 당시 엘시시 정권이 종교 갈등을 방지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종교 및 종파 갈등은 이집트뿐 아니라 중동의 많은 이슬람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다. 이슬람권에서 개방적 국가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해 9월 교회, 모스크, 유대교 사원 등 3개 종교의 예배 시설이 들어설 종교단지 '아브라함의 집'을 2022년 아부다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인물이어서 '아브라함의 집'은 종교적 포용성과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을 상징한다. 질기고 오랜 종교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슬람 국가들의 노력이 작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노재현 연합뉴스 카이로 특파원

수국 여행

김백현(미국)

우선 멈추는 데 쓸지
한 다발로 묶이는 데 쓸지
일단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몰라

꽃병을 쓰고 있는 수국에게 물어본다
수국은 쓰레기통을 건너다본다
멈췄다 가시든지
묶었다 가시든지

수국을 쓰고 있는 쓰레기통에게 물어본다
쓰레기통은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멈췄다 오르든지
묶었다 오르든지

별꽃을 쓰고 있는 밤하늘에게 물어본다
밤하늘은 저녁 하늘을 내려다본다
멈췄다 돌아가시든지
묶었다 돌아가시든지

노을을 쓰고 있는 저녁 하늘에게 물어본다
저녁 하늘은 나를 가리킨다
나는 일단을 가르친다
일단은, 노을보다 꽃병에 쓰이겠다고 하신다 



바른 말 고운 말

‘갑절’과 ‘곱절’

‘갑절’이라는 말은 ‘어떤 수량을 두 번 합치는 일’을 일컫습니다. “크기가 갑절이다”라고 말하면 ‘크기가 두 배’라는 뜻입니다. ‘곱절’은 ‘두 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은 ‘같은 물건의 수량을 몇 번씩 되짚어서 합치는 일’을 뜻합니다. 줄여서 그냥 ‘곱’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곱절, 세 곱절’이라는 말은 각각 ‘두 배, 세 배’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구구단을 외울 때, ‘ $2 \times 2 = 4$, $2 \times 3 = 6$, $2 \times 4 = 8$, ...’ 하며 외웁니다. 이는 2를 두 곱절하면 4, 2를 세 곱절하면 6, 2를 네 곱절하면 8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곱절’이란 말을 사용하면 제대로 맞게 사용한 것입니다. 셈하기에서 ‘곱하기’ ‘곱셈’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때 쓰인 ‘곱-’이라는 말이 ‘곱절’에서 온 것입니다.

이를 떠올리면 ‘곱절’이 ‘몇 배’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갑절’은 ‘두 배’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갑절’처럼 ‘두’라는 수사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반지’와 ‘가락지’

요즘 결혼 예물로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하는 보석 장신구를 준비하는 풍습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금으로 만든 반지 정도는 하나씩 맞춰 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가락지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자주 쓰지 않습니다.

‘반지’와 ‘가락지’를 같은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둘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가락지’는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를 말합니다. 쌍(雙)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가락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쌍가락지’의 ‘쌍’은 ‘가락지’의 뜻을 보충 강조한 접두사입니다.

반지(半指)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짝 고리 중의 반(半), 즉 한 짝으로만 손가락(指)에 끼는 둥근 고리’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한 고리씩 나누어 낀다고 해서 ‘반지(斑指)’라는 한자어로도 나타냅니다. 이렇듯 반지와 가락지는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가 비슷한 모양의 반지를 함께 만들어 각각 나누어 한 짝씩 끼는 것을 영어로는 ‘커플링(couple ring)’이라고도 합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오른쪽 방향 열쇠

1. 하계올림픽에서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 여자가 특히 강해 김수녕, 기보배, 장혜진 등의 스타를 배출했죠.
2. 전 세계에서 선수와 팬이 가장 많은 운동 경기. 이 경기만 치르는 월드컵이 올림픽보다 더 유명하죠.
4. 가을에 주로 피는 꽃으로 사군자의 하나.
7. 정치적인 주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정치적 이성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9. 계와 새우의 중간 모양으로 개울에 사는 동물.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보는 것을 이룰 때 '도랑 치고 이것도 잡는다'고 하죠.
11.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급히 피하기 위해 마련한 출입구.
12. 초목의 뿌리를 일컫는 말로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을 뜻하기도 함.
14. 통나무나 돌 따위의 속을 파내고 우묵하게 만들어 곡식을 찧거나 빵을 데 쓰는 기구.
15.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네모지게 만든 작은 천.
16.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
17. 소의 고기.
18. 어떤 대상에 대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것이 많은 사람을 '○○인'이라고 부르죠.
19. 악기를 다루어 곡을 표현하거나 들려주는 일. "그의 피아노 ○○는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죠.
21. 일본의 가라테를 제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우리나라 전통 격투기.
23. 짠맛을 내는 백색 결정체.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이 되거라"라고 말했죠.

25. 집의 정문. "○○ 밖이 저승"이라는 속담이 있죠.
26. 옷감, 종이, 머리털 등을 자르는 X자형 기구.
27. 24절기의 하나로 밤이 가장 긴 날.
28. 학교에서 학기가 끝난 뒤에 수업을 일정 기간 쉬는 일.
29. 손을 맞잡고 나누는 인사. 코로나19가 유행해 이것을 하는 풍습이 줄었죠.

▶ 아래쪽 방향 열쇠

1. 중국 당나라 현종이 총애한 여인. 같은 이름의 식물도 있어 덜 익은 이것의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죠.
3. 음력 1월 1일,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하는 것에 상대해 설을 이렇게도 부르죠.
5. 그림을 그리는 사람.
6. 모든 구절. 말 한 마디 한 마디마다.
8. 흉당무를 다르게 부르는 말. 말이 특히 좋아하죠.
10. 감기에 걸리면 콧물과 함께 이것이 자주 나오죠.
13.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이나 본을 보이기 위한 물건.
16.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터. 최인훈의 장편소설 제목이기도 하죠.
17.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18. 지구 표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평면에 나타낸 그림.
20. 정육면체의 각 면에 하나에서 여섯까지 점을 새긴 놀이 도구.
22. 손에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 상체를 쳐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홍수현의 '4전5기' 드라마로 유명하죠.
23.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해 들리는 말.
24. 24절기 중 겨울에 들어서는 날.
25. 고등학교 다음의 상급 교육기관. 상아탑이라고도 불리죠.
26. 노래를 부르는 사람. 나훈아, BTS 등이 있죠.

▶ 2020년 10월호 정답

한	글	날			무	지	개
반		개	인	지	계		천
도	전	동	대	문	계		절
	보	총	장	조	약		
		청	소	괴	물		
	수	도	이	주	동		
소	원	학	용	품	태	조	
나	수	교	위	치	부		
무	궁	화		마	름	모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작품집 출간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들이 '2020 재외동포문학의 창' 이란 제목의 책으로 선보였다. 재외동포재단은 59개국 1천 329편의 응모작 가운데 33편의 입상작을 지난 9월 7일 발표했다.

성인 부문에서는 ▲시 부문 황연(중국) 씨의 '왜지나무' ▲단편소설 부문 김수연(캐나다) 씨의 '해선의 집' ▲체험수기 부문 김진아(프랑스) 씨의 '슬기로운 이방인 생활' 이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작으로 뽑혔다.

올해 신설한 입양수기 부문에서는 호주의 하나 크리스프(Hana Crisp) 씨가 'Mother, Lost and Found'로 대상을 차지했다. 청소년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은 ▲중·고등부 김미혜(중국) 양의 '가을비의 사랑법' ▲초등부 신울(중국) 군의 '별'에 돌아갔다. 이밖에 부문별로 우수상, 가작(성인 각 부문), 장려상(청소년 글짓기)도 선정해 시상했다.

417쪽으로 꾸며진 작품집은 수상작 전편을 수록했고 입양수

기의 경우 영어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문도 실었다. 부문별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과 입상자들의 수상 소감도 곁들였다.

1999년부터 재외동포재단이 해마다 공모하는 재외동포문학상은 '재외동포 문인의 산실'이자 '디아스포라 문학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한우성 당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다채로워지는 재외동포문학상을 통해 동포들은 모국어의 울림을, 내국민들은 동포들의 삶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417쪽 분량으로 출간된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집 '2020 재외동포 문학의 창'

제9기 OKFriends 봉사단 콘텐츠 제작 워크숍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8월 28일 발대식과 함께 본격 활동을 시작한 제9기 OKFriends 봉사단을 대상으로 11월 14~15일 부산 미디호텔에서 콘텐츠 제작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에 참가한 국내외 대학생 OKFriends 봉사단원 20명은 첫날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을 받은 뒤, 4개조로 나뉘어 현역마을, 해동용궁사, 부평강통시장 등 부산의 명소를 돌며 브이로그(V-log) 촬영에 나섰다.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콘텐츠를 말한다. 저녁에는 다시 모여 편집 아이디어 회의를 열었다.

이튿날에는 편집, 평가, 테스트 등을 거쳐 발표 시간을 마련했다. 완성된 브이로그를 어떻게 홍보에 활용할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며 알찬 활약을 다짐했다. [창](#)



OKFriends 봉사단원 20명이 부산에서 열린 콘텐츠 제작 워크숍에 참여했다.



재외동포 문학상의 감동

벌써 10년이 흘렀다. 처음으로 재외동포 문학상이 정해지고 신경림 선생님, 정호승 선생님, 그리고 내가 시 부문 심사를 맡았을 때 그 감격은 내 개인의 만족감을 넘어서 내 민족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감동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을 기회로 우리 국민이, 이웃이, 친구가, 혈육이 내 국가가 아닌 다른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현황을 새삼 느끼게 된 것이다.

그 나라가 좋아서 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자신의 조국을 떠나간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면 꿈을 쫓아서 갔을 것이다. 그들이 보낸 시들을 보면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 이민자의 두려움과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의 상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지독한 그리움, 고국과 고향에의 살 무너지는 애착을 그들의 글로 느끼고 감탄했던 것이다. 그런 갈급한 그리움 속에서도 조국의 발전을 염원하고 응원하고 있는 원초적 애국자들의 글은 나를 울먹이게 했던 것이다. 그때는 당선자들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직접 상장과 부상을 안겨드렸으므로 수상자들과 심사위원이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상이기도 했었다.

수상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상금보다 더 설레는 것이 고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심사위원들을 만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할 것을 생각하면 며칠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럴 것이었다. 자신이 쓴 글로 상장과 상금과 고국을 올 수 있는 티켓을 친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큰 상이었을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꿀꺽 삼키며 애달랐던 핏물 섞인 감정을 쏟은 시로, 소설로, 수필로 말이다. 로또가 부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만든 생의 로또였으니까.

자신이 쓴 시로 고국에서 상을 받고 초대까지 받았으니 그 감격은 지



신달자
시인

구의 어느 산보다 높았을 것이다. 그 초대가 사라진 것이 아쉽지만 지금도 재외동포 문학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면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국에서 자신들의 글을 심사하고 상을 준다는 것은 재외동포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하나의 소망이 늘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사실 심사위원으로서 괴로운 것은 보내온 작품들에 모두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어느 일이나 규율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심사 때마다 “다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 한국인은 누구나 다 내성적이다. 하고 싶은 말을 꼭 누르거나 꿀꺽 삼켜서 가슴 안에는 “하고 싶은 말”이 쌓여 간다. 옛날에는 이

런 병으로 죽은 것을 “속 터져 죽었다”라고 했다. 지금은 소통의 대상이 많이 늘었다. 수다, 노래방, 핸드폰 등등... 그러나 정말 자신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절망한다. 재외동포들도 이런 절망이 컸을 것이다. 그 절망과 그리움과 희망을 고국의 언어로 잔잔히 노래해서 조금은 속을, 진심을 드러내었을 것이다. 사실 그것이 첫 번째 상이다.

재외동포 문학상은 아직은 유효하다. 그러니 희망도 유효하다. 가슴속 웅얼거리는 마음의 무늬를 우리말로 새기고 다져 재외동포들의 문학으로 우뚝 솟은 깃발이 우리들의 깃발이 되기를 바란다. 일기를 쓰듯 솟구치는 감성의 물결을 자신의 삶과 뼈의 언어로 다듬어 좋은 글을 만들어 가는 것은 바로 구원이며 축복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고국에 이런 문학의 샘이 있다고 믿으며, 그리움의 갈증을 축이며, 마음속 감탄과 발견과 자연과 인간의 감성을 노래해 간다면 또 하나의 반려자, 아니 진심을 나누는 멋진 벗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게 소중하게 그 글을 읽을 것이다. **창**



12월 1~3일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서울 그랜드워커히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

세계 각 지역 한인회장들의 소통 마당인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히서울 비스타홀에서 열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은 해마다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에 즈음해 외교부 후원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개최 시기를 미루는 한편 초청 규모를 대폭 줄이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으로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주점식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서울 행사장에는 전 세계 한인회장과 대륙별 한인회 연합회 임원 가운데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국회·유관 기관 관계자, 민간단체와 국내 동포단체 대표 30명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나머지 한인회장 등은 거주국 현지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합니다.



지난해 10월 4일 서울 그랜드워커히에서 열린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폐회식에서 공동의장인 강인희 러시아·CIS한인총연합회 회장이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여합니다.

11월 30일(월)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역별 현안을 토론허니다. 12월 1일(화) 개회식에 이어 2일(수) 주요 한인회장 이 각각 한인회 운영 사례를 발표합니다. 3일(목)에는 정부와의 대화, 전체회의의 시간을 마련한 뒤 폐회식을 치를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미주 한인 시문학사 1905~1999 이형권(무른사상)

시에는 함축적 단어로 감정을 응축하여 표현하는 묘미가 있다. 특히 디아스포라 시문학은 국내 문학과 다른 감정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리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모국과 거주국 두 국가의 정체성을 담은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미주 지역에서 한민족이라는 정서적 공동체가 어떻게 문학 장르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시작된 한인 미주 문학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함축적 언어로 표현된 디아스포라 감수성을 만나보자.



않다. 이 책에 선정된 20명은 그나마 역사의 한편에 기록이 남아 있어 소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이념 대립으로 인해 무명으로 묻혔던 독립운동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 이명종(한양대학교 출판부)

한반도에 접해 있는 만주는 역사적으로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친 지역이다. 만주에 대한 지금의 인식을 알아보려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담론들을 살펴봐야 한다. 17세기부터 20세기 만주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만주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고, 재만 조선인의 현황 등을 짚어냈다. 병자호란부터 만주사변까지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한국과 만주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역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만주 의식을 찾아보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 인식을 되새겨보자.



우리가 버린 독립운동가들 손성진(개마고원)

독립운동가 공훈록에는 1만5천여 명이 등록되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독립운동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활약하며 우리 광복에 기여한 인물이 많지만, 그중 우리가 기억하는 이는 많지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국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